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제시문 (마)의 '청동의 시간'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가), (나), (라)의 핵심내용과 연결하여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함】 • '청동의 시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 '청동의 시간'이 의미하는 바를 제시문에서 찾아 핵심 내용으로 정리하여 압축적으로 서술하였는가? –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전쟁, 갈등, 고통, 난민, 핵과 미사일, 불안한 현실, 적대적 공생관계, 남북한의 대립, 적대화, 인권 박탈, 남북한의 현실	15
2-2	【제시문 (마)의 '감자의 시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시어를 찾고, 이것의 의미로 추론될 수 있는 것을 제시문 (나), (다), (라)에서 찾아 압축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감자의 시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시어를 찾아 제시하였는가? •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 제시된 시어로 추론되는 바를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과 연결하여 서술하였는가? –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땀, 물, 태양, 옥수수, 핵과 미사일, 남북한의 긴장, 대화, 세계평화, 문화의 힘, 적대적 공생관계, 내 속의 참함, 주적의 참함, 악수, 공간과 기회	20

예시답안

2-1. 청동의 시간은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 받는 차가운 시간이다. (가)는 전쟁의 비극으로 삶의 터전이 뿌리 뽑힌 난민, 쿠르디 가족의 삶이요, (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불안한 현실이며, (라)는 남북한의 대립 상황을 지속시키는 정치세력들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해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반도의 현실이다.

2-2. (마)에서 감자의 시간을 사는 데 필요한 것으로 땀 흘리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과,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옥수수가 제시되었다. 이 시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인한 위험과 한반도의 긴장을 풀고 상호 간 신뢰를 쌓는 대화가 제시되었고, (다)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의 불행에서 탈출하여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높은 문화의 힘을 갖는 것이 제시되었다. (라)에서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끝내고 내 속의 참함과 주적의 참함이 악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는 일이 제시되었다.

문 항 3

문제

【문항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정보가 모두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대중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기자와 편집자 등 여러 제작자를 통해 취사선택 및 가공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정보 생산자의 이해관계와 편견이 개입되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독재 권력이 대중매체를 통제하는 경우, 대중매체는 정보를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권력을 미화하고 권력자의 의도대로 대중을 선동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은 다양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나) 사실 인간은 늘 탈진실(post-truth)의 시대를 살아왔다. 호모 사피엔스야말로 탈진실의 종(種)이다. 호모 사피엔스 특유의 힘은 허구를 만들고 믿는 데서 나온다. 석기시대 이래 줄곧 자기 강화형 신화는 인간 집단을 하나로 묶는 데 기여해왔다. 우리는 수많은 이방인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포유동물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도 허구의 이야기를 발명하고 사방으로 전파해서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까지 그 이야기를 믿도록 납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진실과 권력의 동반 여행은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머지않아 각자의 길을 가게 돼 있다. 권력을 바란다면 어느 지점부터는 허구를 퍼뜨리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반면, 세상에 관한 모든 허구는 배제한 채 진실만을 알고 싶다면, 어느 지점부터는 권력을 단념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동조자를 얻고 추종자를 격려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실들마저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훨씬 더 결정적인 것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원천, 그리고 자신이 더 많은 권력을 바라는 이유에 관한 어떤 불편한 진실마저 인정해야만 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 가짜뉴스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한다. 워낙 정보량이 많고 바쁜 시대라서 얼핏 보면 어떤 기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앞으로 가짜뉴스의 생산과 공유는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구 미디어보다는 뉴미디어 사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짜뉴스를 접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질 것이다. 특히 SNS 등을 통해 정치적 견해나 사고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연대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 과정에서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기 쉽고 가짜뉴스가 넘쳐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셋째,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확증편향과 맞물린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눈은 마음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본다."라는 말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확증편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정보를 편식한다.

(라) "콜론나,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민주적인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가 사실을 의견과 구별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그 원칙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말했다.

"영국이나 미국의 주요 신문들을 보면 됩니다. 신문의 기자들이 화재나 교통사고에 대한 기사를 쓴다고 칩시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목격자의 증언이나 여론의 대변자가 될 만한 사람의 논평을 기사에 끼워 넣습니다. 그러한 진술들은 일단 인용이 되면 사실

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저러저러한 의견을 말했다는 게 하나의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인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
이웃의 슬픔은 ㉠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귀 하나 심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
사회자는 흐느꼈다
보라,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때 ㉣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유령인가, 목소리가 물었다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바) "오늘 새벽,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A씨(28세)가 B씨(25세) 차량의 고의적인 접촉으로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졌다. B씨는 폭주족 집회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새끼고양이를 발견하고 데려가려 했는데, 그 모습을 본 A씨가 자신이 고양이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다툼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결국 도로에서 추격전을 벌였으며, A씨는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당 지역 경찰에게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뉴스 ①과 ②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 ① **폭주족 자료 영상** ⇨ 사고 현장 ⇨ 피해자 가족 인터뷰 ⇨ 가해자가 조사받는 경찰서 앞
뉴스 ② **새끼고양이를 안은 가해자 자료 영상** ⇨ 사고 현장 ⇨ 피해자 가족 인터뷰, **가해자 친구 인터뷰** ⇨ 가해자가 조사받는 경찰서 앞

3-1. 제시문 (가), (나), (다)를 활용하여 제시문 (마)의 밑줄 친 ㉠~㉣의 태도를 분석하시오. (300자±20자) [15점]

3-2.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뉴스 ①과 ②를 본 시청자가 지니게 될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제시문 (가)와 (다)의 논점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정보 수용의 자세를 서술하시오. (350자±20자) [20점]

출제의도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재편되면서 우리는 정보의 진위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뒤덮는 시대에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무감각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진실과 허구는 야누스의 얼굴과 같다. 이러한 측면과 마주한 우리의 삶과 일상이란 얼마나 혹독한 자기 노력과 검열을 요구하는가. 무관심과 침묵은 결코 세계를 이해하는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특정 권력의 현상 유지에 기여하거나 공론장의 왜곡을 방조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신문 뉴스에서 연일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미디어가 단순히 정보 교류와 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현실이 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미디어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직시하는 일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 3은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문제 3-1은 대중매체의 비판적 수용과 관련된 제시문 (가), (나), (다)를 통해 제시문 (마)의 이분(권력자)의 기만과 사회자(선동가)의 찬양, 군중들(대중)의 맹신, 누군가로 대표되는 비판적 지식인의 모습을 우화 형식으로 제시한 기형도의 시에 나타난 다양한 인물군상들의 태도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문제 3-2는 기사 편집에서 인용 방식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뉴스 사례들을 비교하도록 했으며, 제시문 (가)와 (다)를 통해 정보 수용의 올바른 자세를 서술하도록 했다

문항해설

오늘날 미디어는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다. 각종 미디어가 끊임없이 쏟아내는 정보의 범람 속에서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판별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보를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 미디어 리터러시는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이다. 이 문항에서는 미디어의 시점과 논조, 정보 생산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수용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세계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진실을 향한 항해에서 휩쓸리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했다. 미디어는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문제 3은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3-1은 제시문 (가)의 대중매체의 비판적 수용, (나)의 권력 획득과 유지에 개입하는 진실과 허구의 문제, (다)의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근거로 제시문 (마)의 “이분, 사회자, 군중들, 누군가”라는 인물들의 태도와 의미를 묻고 있다. “이분”으로 대표되는 권력자의 위선적 태도, 대중을 선동하는 “사회자”의 기만적인 태도, 허위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군중들”의 맹목적 태도, 이러한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누군가”의 비판적 태도는 지금여기의 현실에서 쉽게 목도할 수 있는 인물군상의 모습이기도 하다.

문제 3-2는 제시문 (라)의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시문 (바)의 뉴스 사례 ①, ②가 시청자에게 어떤 반응을 초래하는지를 묻고, 제시문 (가)와 (다)를 통해 정보 수용의 올바른 자세를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사례가 보여주듯이, 뉴스는 인용 방법에 따라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제시문 (가)와 (다)에서 드러나는바, 수용자 자신의 관점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석해야 하며, 확증편향에 매

몰되어 정보를 단선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다면적으로 인식해야 하겠다.

제시문 (가)는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으로, 대중매체의 비판적 수용과 관련된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발췌하였다.

제시문 (나)는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뽑은 글로, 탈진실의 시대에 허구와 진실, 권력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도록 했다.

제시문 (다)는 설규주의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에서 발췌·편집한 글로, 가짜뉴스가 개인의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론장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라)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하나의 사건이 편집자의 관점이나 인용 방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널리즘의 문제를 다룬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제0호』에서 일부분을 제시하였다.

제시문 (마)는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자와 선동가, 맹목적인 믿음에 도취한 군중들, 합리적인 비판을 제기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우화적 형식으로 제시한 기형도의 시 「홀린 사람」 전문이다. 오늘날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우리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제시문 (바)는 모리 다쓰야의 『뉴스 사용 설명서』에서 발췌한 글로, 하나의 사건이 보도 방식에 따라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 제시문들을 통해 세계의 복잡성과 다양성, 권력과 미디어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는 『화법과 작문』, 『생활과 윤리』, 『사회』, 『사회·문화』 교과목에서 정보화 사회의 특성, 대중매체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제시문 (가), (나), (다)를 활용하여 제시문 (마)의 인물 ㉠~㉣의 태도를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함】 • 제시문 (가), (나), (다)의 핵심내용을 파악하였는가? • 제시문 (가), (나), (다)의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인물 태도를 분석하였는가? –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정보생산자의 이해관계와 편견, 권력, 권력자의 의도, 정보 왜곡, 정보 조작, 대중 선동, 허구, 신화, 진실, 권력, 동조자, 추종자 권력의 원천, 가짜뉴스, 가짜뉴스의 생산과 공유, 확증편향, 정보 편식	15
3-2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뉴스 사례를 비교하고, 제시문 (가)와 (다)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정보 수용의 자세를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함】 • 제시문 (라)의 핵심내용을 파악하였는가? • 제시문 (라)의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뉴스 사례를 비교하였는가? • 제시문 (가)와 (다)의 핵심내용을 파악하였는가? • 제시문 (가)와 (다)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보 수용의 자세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는가? –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사실, 의견, 인용, 비판, 해석, 시정, 왜곡, 조작, 확증편향	20

예시답안

3-1. (마)의 '이분'은 권력을 획득하고 자신의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위선적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사회자라는 하수인을 통해 자신을 미화하고 대중을 선동하도록 한다. '사회자'는 권력자의 하수인으로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편견이 개입되어 권력자의 의도대로 정보를 왜곡하고 조작하여 대중을 선동한다. '군중들'은 권력자의 하수인이 전파하는 허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맹목적으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다. '누군가'는 권력자의 하수인이 퍼뜨리는 왜곡되고 조작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3-2. (라)는 언론이 무엇을 어떻게 인용하는가에 따라 특정 의견이 사실로 둔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의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편집된 뉴스 ①을 본 시청자는 가해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반면에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뉴스 ②를 본 시청자는 가해자를 온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는 정보가 권력자 또는 정보생산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음을, (다)는 대중의 확증편향에 의해 허위정보가 확산되기 쉬움을 경계한다. 따라서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로 정보를 수용해야 하며,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진위를 확인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